

2022.3.14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300개 단체연합)
 동성애 동성 혼합법화 반대 전국 교수연합
 건강사회단체 전국협의회

사학미션, 사학법 개정 법률에 헌법소원 제기

43개 기독교사학 법인과 교사, 학생 등 8336명 청구인 참여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는 지난 3월 21일(월) '기독교사학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기독교사학의 교원임용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제2대 국회의 4차례 교섭 업무협약(업무협약 제164호)이 위헌임을 밝힌다는 의지다.

이번 헌법소원은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가 함께하는 최초의 헌법소원으로서 전국 43개 기독교사학 법인과 122개 학교, 교사와 교사 예비 교사를 포함한 교원 361명과 학부모와 학생 8336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을 대표해 '기독교사학 100인 대표단'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법률조항은 크게 3가지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1차 평가시험을 반드시 실시하게 하는 '사립학교법 제2조', 교원임용에 대해 정부가 미흡할 경우 교육청 내 신설한 장제설의 위임권을 통해 재산을 하기로 하고 그 신의 제과제도 정제하는 '정제법 제2조', 불응이 일

원 승인을 취소한다는 '입원승인 취소조항'이다.

사학미션은 "교원임용에 있어 시험합격 강제조항은 '사립학교법' 제2조와 '입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권력남용 규범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방해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입원의 공공성과 교육의 자율성을 함께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에게 평가시험을 강제로 위탁함으로써 학교법인과 학생, 학부모 등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교육선택권, 학습권, 종교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기독교사학'의 경우 이번 개정안은 종교적 사립학교의 70%에 이르는 기독교사학의 인사권과 자주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권력남용에 동의하지 않는 비종교인들과 타종교인, 그리고 심지어 이단들의 교원 임용을 사실상 막을 길이 없어지게 된다"며 "이 는 기독교학교의 존립 근간을 무너뜨리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월드비전-희망디딤돌센터, 업무협약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 역량 강화 위해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영환)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을 위해 지난 3월 10일 희망디딤돌 경기·광주·충남 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대구 보호종료아동자립지원센터, 부산 아동자립지원시설, 강원 자립종합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은 이후 두 번째다.

보호종료아동들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해야 하는 아동을 뜻하며, 매년 2,600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보호종료아동으로 하루 22.11부터 보호연장 강요 적용으로 아동이 원할 경우 24세까지 시설에 있을 수 있다.

희망디딤돌센터는 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에게 1:1 생활 훈련 센터의 개별 주거공간과 개인별 역량을 갖춘 1:1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한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월드비전은 총 6개 권역 자립지원 기관 및 36개 협력시설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보호종료아동들 대상으로 약 20여명의 예산을 투입해 이들의 자립 역량 강화에 힘을 모은다. 올해 말까지 아동 1인당 최대 2천·가구당 20만 원,



주거비(연종금·월세·관리비) 3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월드비전 조영환 회장은 "이번 업무 협약은 지난 해에 이어 지자체와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긴밀하고 지속 가능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나이에 홀로 사회로 나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의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월드비전은 2018년부터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립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시설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자립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자립지원 센터·정서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도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법'을 제정했다.

한국컴패션 '기부 사이클링' 참가자 모집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는 언택트로 진행

한국컴패션이 31일까지 '2022 컴패션 바퀴질 사이클링'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30여대를 맞이한 컴패션 바퀴질 사이클링은 참가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는 언택트(비대면) 기부 사이클링이다.

올해 컴패션은 빈곤 지역 지원과 교육, 사후 관리에 전념을 갖춘 비영리단체 월드 비시스를 릴리프(WBRR)와 함께하며, 참가비로 모인 후원금은 케냐 마쿠에니 카운티 지역에 사는 컴패션 어린이 165명에게 동화를 지원해 선물하는 데에 사용된다.

참가자는 일주일 어린이 결연비행 450,000원이거나 일주일 후원(6만 원)을 통해 컴패션 바퀴질 사이클링에 참여할 수 있다. 일주일 결연에 참여한 '스페이스 라이더' 50명에게는 후원자와 후원 어린이 이름이 각인된 스페셜 메달이 제공된다.

이들 참가 신청이 완료된 신청은 100명에게만 한정되며, 메달과 배너도 같이 포함된 패키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참가자는 원하는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3월 6일부터 17일 사회연결망 SNS에 인증하면 된다.

어린이들의 동행권을 따낼 수 있도록 책가방을 멘 모습이나 완주 메달을 든 사진으로 인증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후원금 통해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앞서 컴패션은 '2022년 컴패션 바퀴질 사이클링'에서 모인 후원금 630,000원으로 탄자니아 어린이 40명에게 동화용 자전거를 선물한 바 있다.

자세한 모인 후원금은 대략 어린이 200명의 목단, 패턴 배신 비용으로 사용된다.

한국컴패션 서정인 대표는 "기후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한국컴패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번 컴패션에는 바나나과, 라벤더, 도라지, 박스, 색소, 파우더, 농심, 루미 등의 기업이 함께한다.

장항준 김은희 부부 우크라이나 어린이 위해 3000만원

"하루 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기철)는 4일 장항준 감독, 김은희 작가로부터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기부금 3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전달된 기금은 유니세프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식수, 의약품, 보건, 보호시설 지원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들은 학교, 병원,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파괴로 식수를 비롯하여 의료, 교육, 보호 등 필수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지역 내 폭탄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 기부금 전액 장항준 감독, 김은희 작가는 "전쟁 속에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어린이

들에게 너무 가슴이 아파 기부하게 됐다. 하루 빨리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들에게 평화가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장항준 감독은 2006년부터, 김은희 작가는 2012년부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를 후원하며 전 세계 어린이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연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혜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맛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할 시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혀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365 치아 건강비전 옥금수
충치·풍치·잇몸질환
옥금수(소금물)로!!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www.envber.com

상담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가족세션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소복교회, 가족세션전도 아카데미 원장

아름다운 복음의 동산

아름다운 동산 복음의 동산
산 두루마리 기술에 동화하는
전통한 빛이 비추는
예수영광이 나타나
강화도 산두루마리에
복음의 나팔소리 가도의 부름이
사랑의 종로되어
계곡마다, 골짜기마다,
산등산을 넘어 온누리로
온 세계를 향해 울려 퍼지거나,
온리온, 강령리 기도촌으로
민들의 동산으로
복음의 동산으로
임 장로님 민들의 장로이시다.
민들의 배포로 나타나
개혁의 선구자, 시대의 선구자, 지혜의 해설자.
이 모든 것이 주님주신 은총이로다

행복한 전도에 열망하는 박영수 목사님.
가족세션전도 도인반으로 주무시다.
나 또한 대종과 만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수영광을 나타내느냐, 드러내느냐
이 아름다운 동산을 통하여,
이 부름의 종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통하여,
주님의 작은 작품들이 되어
마음껏 영광 돌리렵니다.
주님은 나의 예술가,
원성도가 뛰어난 예술가 주님.
빛과 지혜를 나타내신 주님.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시니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받으소서!
가족세션전도본부장 사인 이수 교수

오늘도 겸손히어드리며 무릎 꿇는다
함주셔서 능히주셔서 나를 이끄소서!
나 믿음에는 주님의 종입니다.
명령한 하옵소서, 순종하리이다.
주님 기뻐하는 종 되리이다!

동영상: <http://dognaver.com/bs2573>
가족세션전도대표총재
문화선교TV방송대표 박영수 목사
평내소복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40
031592-6691, 0105730-2573



생명의 말씀



정형기 목사

· 교단 재원위원장 역임
· 광주유니온교회 양원 이사장
· 자유총일회국동지회 대표회장

부패를 높이게 하시지요? 부패란에는 철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땅이 좁아 이 높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을 보면 넓은 공원에서 바닷가 해변에서 노닐며 뛰어다니는 구부러진 부패를 공중 높이 던지듯 정확하게 던진 사람에게 떨어지는 것을 보는 높이입니다. 우리 인성은 부패함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욕망을 위하여 심는 자는 욕망에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심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심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 6:7-8)

일본은 30년간 우리 민족을 약탈했습니다. 나라 잃은 민족의 수난과 슬픔을 절실하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

리 민족은 쉽게 잊는 습관이 있습니다.

역사를 조망해보면 당시 우리 민족의 3선 원조는 집안에서 당파싸움을 합니다. 당파싸움(정당)도 야(진보/보수)를 하다 보니 국가발전과 국민 행복보다는 가득큰 다름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 틈을 이용해 일본은 대한민국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1905년 을사보초조약을 체결하고 이완용과 이등박문을 강제로 제정했습니다. 을사보초조약은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 심지어 인종까지 권한을 일본에 위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을 점령하고 그 세력을 넓혀 가던중 1909년 1월 안중근 의사는 일본인으로 가장하여 하얼빈 역에서 러시아 군인인사를 받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데 성공하고 러시아 경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일본헌법에 따라 사형선도를 받고 28살 수감되었지만 그의 모욕과 대항 1910년 3월 26일 젊은 나이에 감옥

에서 순국하게 됩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일본놈들은 이완용을 앞세워 순종황제로 하여금 도장을 찍게 하고 대한민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든 것입니다. 일본 놈들이서서 동정을 만나 보면 훌륭한 선정을 알 수 있었으나 나라가 위태로울 때 애국자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진짜 애국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찰관, 군인, 국회의원, 장관 아닙니까. 진짜 애국자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목숨 내놓고 나라를 위해 항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3.1운동도 33명 중 16명이 기독교인이 주축이 되어 항거했습니다. 이후 일경시대 때 신사참배에 항거하다 결국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습니다.

문정부에서 한국교회는 병역을 비롯 이

런저런 이유로 온갖 탄압을 받았습니

다. 일본은 히로시마 원폭공격에 항복하여 비로소 1945년 8월 15일 일제에서 해방이 되고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1)공산주의를 받아들여 인민공화국이 될 것인가? 2)아니면 이남을 시정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세울 것인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는데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보니 북한은 가장 못사는 저지 나라가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은 해안가에 보호함으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미국 다음으로 선진국들 가장 많이 파송한 세계 영적국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70년 속기회에 보면 1949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이윤형 목사의 대표기도로 시작했으며 초대대통령으로 이승만 박사(가) 내정되었고 1949년 7월 12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해방한 애로로 제헌 날이 되며 새로 만들어진 헌법에 의해 정부가 세워졌다고 말하며 취임

선서를 한 것입니다.

나 이승만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리를 중시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과 하나됨에 약속하 선언합니다. "국민의 하나됨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 146:5)

그러나 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은 바람 끝에 떨어진 나라가 된 것입니다. 문정권은 대한민국을 공산국가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위험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 영적싸움, 영적전쟁입니다. 영적싸움은 열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의 무기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 인간 행복을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자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정

퀀타나 유엔 특보 북한인권 보고



토마스 오레아 퀀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서 지난 6년 동안 북한의 인권이 더욱 악화했다고 평가했다고 '미국소리'가 지난 15일(금) 보도했다. 퀀타나 보고관은 지난 21일 최종 보고서 공식 제출했다.

조현상 목사 등 신발 구매 구호



한국기독교연합 봉사단(단장 조현상 목사)은 최근 방북을 위해

한국기독교연합 봉사단(단장 조현상 목사)은 최근 방북을 위해 해외를 입은 김경·동해 지역에서 긴급 구호활동을 펼쳤다. 단장 조 목사 등 구호단은 동해시를 찾아 피해를 입은 가정들을 직접 방문해 위로하기도 했다. 조현상 목사는 심의에 차 있던 분들에게 교회가 도울 것을 약속하며 산발하게 가족들을 위로했다.

김진영 목사, 안병 의원주신 해



김진영 교수(한국기독교연합회 대표, 영남신학대 교수)가 지난 18일(금) 유류부

로 생성된 '저렴한' 가격으로 알기 어려운 '하바'에서 크리스찬 장로들과 10대들의 Q&A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연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법이 사회·정치·경제 등 모든 영역에 침투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을 의의주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동대와 종진교 협력 추진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와 종진교(총장 최기영)가 18일(금)에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와 종진교(총장 최기영)가 18일(금)에 유류부 내 장로성 태계 조성과 장로성 람 강화를 위해 국제개발협력(ODA) 협력을 추진한다. 한동대는 지난 10일(목) 서울 목동에서 종진교와 용담 ODA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최도성 한동대 총장과 김학도 종진교 이사장이 참석했다.

논평

한국교회인문학

도로 민주당, 또 차별금지법? 국민들과 계속 대립각을 세우려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패배하고, 가계 여당에서 야당으로 내려앉았다. 급기야 민주당은 당을 비상대책위원회로 대체로 전환하였다. 예 대선에서 패배하지, 당을 해산하고 변화를 주겠냐는 심산이다.

그러나 14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주장은 주장이 또 나왔다.

이미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평등법 등 여러 개의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발의 중에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시선은 별로이다.

지금 민주당의 문제점은 공평과 상식을 잃어버렸기에 지금 5년 내로 정권을 넘겨

준 것이다. 그것도 민주당에서 일명만 검찰 총장 출신의 야당 후보에게

이번 민주당의 행보에 대하여 국민들은 실망 그 지점이다. '차별'을 하지 말자는 주장을 삼아하고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무례는 소수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수를 억압하려는 심한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누군가를 겨냥하여 차별을 하겠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이번 주장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반응도 적잖다. 그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발정은 역사발전법, 반대차별법, 소수자특별법, 에이즈확산법, 성병확산법, 동성혼

인법, 부모격자요법, 동성애교육법, 양성수 양성법, 종교인양성법, 여성평등법'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한날 차별금지법 내 세우는게 누구보다 차별이 심한 정당에 서지 않아야 한다.'

또 차별금지법 자체가 차별이다. 능력껏 각자 열심히 사는 것이, 왜 차별? 민주당은 답이 없군요. 비윤리적인 사고를 다수가 소수에 맞춰서 살라는 거요? '국민일평생'이 차별법 제정을 원한다고요? 누가 그러니까? 'xx소'와 'xx남'에서 감성법, 영아하는 인간들, 위안부법, 세월호법, 이런 법이... '차별금지'라는 법이 안 됩니다. 역사법, 독재법 반대합니다'라는 격한 반응들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틈나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데, 이는 민주당의 패인을 일소(一掃)하는데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정말로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同意)하면 인더민주당에 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을 무시하지 말고 내로남불부터 반성하고 가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게 되면 윤리 도덕을 무너뜨리고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짓밟게 된다.

또 동성애 중립과 보호를 통한 가정 파괴와 사회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성(性)의 가치체

가 무너지는데, 이는 성을 통한 행위를 일으키는 세력들에 의하여 오인된 이념의 도구로 악용되는 불행에 맞닥뜨릴 것이다. 이런 타락한 사회로 전락하는 것을 두고 볼 것인가?

사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동성애 특별우대를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제정하려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깊이 살핀 이들은 '차별금지법'이라고 쓰고 '동성애법'이라고 읽기도 한다.

그러한에도 민주당이 계속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하려한다면, 정의당과 같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더 크게 국민적 지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3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3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수 : ① 일시: 2022. 8. 31(수)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 자료실 → 서식다운로드 → 교단서식 →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 2부 작성 → 지방회에 제출 → 지방회임원회 심의 →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22. 9. 15(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 ① 일시: 2022. 9. 29(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22. 8. 31(화)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23. 2. 6(월)~7(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과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총 회 장 목사 신재영 고 시 위 원 장 목사 이석호
총 무 목사 이경진 고 시위원회서기 목사 김영준

- 전 점 조문 : 정책위원장 조종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찬진 목사 ● 인쇄인 : 배성현
- 연락 처 : 전집국 ☎(02)2677-9935~6, 구독문의 ☎(02)2677-9937
광고국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m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디걸 5
- 돈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오라비에게자 : 국민연락처 061701-04-129898 박하국